

감염병 인프라 단계적 조정

도, 일반의료체계 인프라 확충 · 하반기 재유행 대비 필수 병상 유지 등 조정 방침

전북도가 원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5.23)을 위해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확진자수 정점(3월15일, 17,534명) 이후, 입원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와 제1차 및 외래진료센터 이용 환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인프라는 확충하되,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필수 병상은 유지하는 등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단)선별진료소 축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선별진료소 총 2개소를 축소해 27개소(보건의료 14, 의료기관 13)만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감염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검사에 집중한다.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은 전부가 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결과를 확진 인정(3.14) 이후, 411개소(PCR가능기관 64개소 포함)까지 확충해 운영 중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진단과 치료 속도를 높여 전파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지속 확충
제1차 진료관리의료기관은 최대 80개소, 15,230명 관리역량을 확보했으나 이렇듯 중·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제1차 진료자 감소에 따라 관리기관 및 최대관리가능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처방 동네병·의원(5월9일, 3,900개소)을 지속 확충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원활한 재택치료를 지원하고, 안착기(5.23~) 이후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하되, 동네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원치료)감염병 전담치료병상 단계적 축소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대비
간염병 치료병상은 최대 17개소, 1,685병상을 확충했으나, 병상가동률 일련

료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병상은 확진자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지정해제된 병상도 감염병 위기시 1주일 이내 재가동을 할 수 있게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 전담병원의 보유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유지하고,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증중병상 대부분은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군 확진자의 빠른 입원과 치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중증중 병상은 유지할 계획이다.

경증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재택치료 위착에 따른 낮은 가동률, 예산·인력 부담 대비 비효율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유호상 기자

“인구이동 특성 고려 인구대응방안 수립해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 대응방안 이슈브리핑 발간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정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21.10월)한 후 인구 감소 대응기금을 편성(연간 1조원, 10년)해 지역에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전북의 시·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지역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북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인구정책 방안을 제시한 전북연구원의 이슈브리핑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난 2020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7,172명 중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순유출이 5,912명으로 전북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이에, 전주·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의 진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유호상 기자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 하기 때문에 사회간접비용(전입·전출) 대응도 중요하다. 자연감소(출생·사망) 주 요인인 출산을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순창·고창·남원·정읍 등은 광우전 남권 장수·무주 등은 영남권으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확대도 전북도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최근들어 완주·진안·무주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의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배후거점을 조성해 유동인구, 체류인구 등 관계인구 유치를 통한 인구 활력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호상 기자

도, 상상단편영화제작프로젝트 수강생 15일까지 모집

도는 올해로 13기를 맞이하는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을 작년에 이어 전북독립영화협회, KT&G 상상 unit와 함께 진행한다.

2022 마스터와 함께하는 상상단편영화제작프로젝트는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영화 현장 경험이 많은 마스터들의 멘토링 및 제작 참여를 통해 영화 현장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영화제작과 전북 영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히, 시나리오·연출·화상·감독, 촬영·김보라·감독, 사운드·이상혁·감독, 편집·원창재·감독, D.I 전상진·감독 등 마스터들이 영화제작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수업과 영화제작 현장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에비규환’, ‘우리집’의 김세훈

프로듀서가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 전 영화제작 전반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5일 일요일 자정까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및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민과 원우를 위한 특강 및 축제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에 유명강사를 초청해 도민을 위한 스피치 무료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인들과 같이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사 박인욱
명지대학교 교수 역임
국내유명 여성강사 1호



대회본부장 김경욱
전담교수
스피치올림픽의 전북회장



대회장 손영엽
군산대 스피치과정 원우회장
서평수술포럼(주) 대표이사

- 일시 : 2022년 5월 14일 (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남문 앞)
- 주최 :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 주관 :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전화 : 285-6676, 231-6669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군산항 활용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사업자·항만운영사 간 협력관계 구축

군산항 사전 확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적기 추진 기대

전북도는 10일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사업자·항만운영사 간 군산항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시 체행석 경제항만혁신국장, 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6·7부두 각 항만 운영사(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군장선항만(주), C대항운, 세방(주))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군산항 6부두, 7부두 및 기타 부지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 범위 및 역할 등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동력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사업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군산항 사용에 협력하며, 항만운영사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지의 해상풍력 기지제 양·적하량만 혁신국장, 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6·7부두 각 항만 운영사(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군장선항만(주), C대항운, 세방(주))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군산항 6부두, 7부두 및 기타 부지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 범위 및 역할 등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허가를 받아 2026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이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1단계 800MW 조성사업은 올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유효영역 확보 조사를 완료해 사업구역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2단계 1.2GW 발전사업자 공모기준을 마련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군산항이 해상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사업자·항만 운영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1회용품 줄이기’ 사전거 캠페인 전개

매일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 14개 시군과 함께 대대적 홍보 활동

전북도가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출근길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사전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도는 매일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3월부터 매일 10일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은 도청사에서 혁신도시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길 시민들과 혁신도시 주민,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일반 도민들에게 1회용품 없는 날을 알리고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같이 이뤄졌다.

아울러, 작년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시행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이행실태를 점검과 함께,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청사내 회의실 점검을 통해 종이컵, 플라스틱 생수병 등 1회용품 제거 여부를 점검했으며, 점심식사 후에 커피 등 음료를 1회용품에 담아서 들고 들어오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도는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속 실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유호상 도 환경복지국장은 “생활속 작은 실천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도민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 완주군 상관면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구축 추진

전북도가 화재, 풍수해, 감염병 등 각종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현장 대응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를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을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완주군 상관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내에 연면적 1,000㎡ 규모의 철골 구조 형식으로 신속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 구축을 통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고가·특수장비 등을 비축·관리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고가·특수장비의 경우 개별 시·군에서 각각 구입해 비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였고, 기타 재난관리자원도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제 재난발생 시 자원이 부족하거나, 즉시 동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광역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재난의 대형화 장기화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된다.

센터는 현재 설계영역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7월경 착공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비축 자원 목록을 확정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 차질 없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